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기반 마련

학폭법 개정안... 전북교육청 건의 내용 대폭 반영 대책위 지역교육청 이관·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이 국회의 법률개정으로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은 가해피해 학생간의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담당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강요시켜 교육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을 받아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

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축,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미 2017년부터 학교장 종결제를 학교생활교육계획 지침으로 시행해왔으며,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학부모위원 축소 역시 학교폭력대책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꾸준히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위원 참여 비율을 줄였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분의 1로 변경된다.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상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교사들의 민원 및 소송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는 김승환 교육감 3기 공약중 하나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결실을 나타냈다"면서 "대책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종종 별사랑 음악회 '큰 호응'

전북도교육청 소속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에서는 호성보육원, 삼성휴먼빌 보육원 등 육아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회와 친문관측 행사를 결합한 '육아원 가족과 함께하는 종종 별사랑 음악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7일 저녁 7시 40분부터 10시 00분까

지 진행된 이 행사는 65명의 육아원가족을 위한 친문음악축제였다. 전체부영관에서는 익산 시립교향악단 소속 현악 4중주가 연주하는 아기사어, 스타워즈 OST, 모차르트 작은별 등을 감상하면서 거문고자리 직녀성, 독수리자리 견우성, 다양한 은하, 성

단, 성운 등을 찾아보고, 천문교육실에서는 LED와 광섬유를 이용한 백조자리 만들기 체험을 했다. 전국 최대 규모 304mm 굴절망원경을 보유한 주관측실과 8대의 천체망원경을 보유한 보조관측실에서는 달, 목성, 토성, 직녀성, 백조자리 알비레오, 웃집이 성단 등을 찾아보고, 참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에는 흥미와 감동이 서려있는 것 같았다. /정은성 기자

또랄또랄한 눈으로 연주회를 감상하던 박지연양(초등학교 1학년)은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은 오늘 처음 보았는데 악기도 아름답고 소리도 예뻐서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육아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9월 6일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집중력 향상 '수학창의 캠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수학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연구·탐구·실습·제작활동에 적용하는 체제의 장을 마련했다. 8일과 9일 이틀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생(5~6학년) 144명,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창의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학 창의캠프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이론과 실제를 융합적으로 접목해 실제 생활에 적용·활용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문제적 학생 활동, 방탈출게임, 모뎀별 문제 해결활동, 수학올림픽 등이며 특히, 수학올림픽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고 배려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발적 학습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대학협력사업 본격 추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사업스타트업지원단의 '청년몰 대학협력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공설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물랑투즈201'에는 현재 1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최근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공설시장 청년상인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몰과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호원대학교는 대학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지식기술 재산 등을 적극 지원해 청년몰과 군산공설시장, 지역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공동브랜드 상품을 개발 등 생산 및 제조, 판매까지의 시장형 6차산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호원대학교 연합동아리 및 호원대식조리학과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V-커머스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온라인 판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가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사업스타트업지원단의 '청년몰 대학협력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호원대학교 청년몰 김나형 대학협력사업단장(외식조리학부 교수)은 "대학협력사업을 통해 대학과 전통시장, 청년상인들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동 수익 모델을 개발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들이 우리 대학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사업스타트업지원단의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대학협력사업은 청년상인의 육성,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책 읽는 즐거움에 '풍덩'

전주영생고 권승호 교사 '한자성어로 배우는 한자' 출간



전주영생고등학교 권승호 교사가 '한자성어로 배우는 한자(도서출판 엘피)'를 출간했다. 학습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휘력이 중요하고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자가 필수라고 강조해왔던 저자는 기존에 출간된 여러 한자성어 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시작했다. 권 교사는 역사사지易地易之之를 '갈 지가 아니라 그것 지'로, 사대주의事大主義의 事를 '일사가 아니라 섬길 사로, 피로연披露宴의 露를 '이슬 로가 아닌 드러낼 로로 설명한 책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665개의 한자성어를 엄선해 각 한자성어의 의미에 맞는 훈(笑)을 하나하나 적었고, 그 훈에 맞게 직역한 뒤 의미를 덧붙였으며, 직역과 의미만으로 부족한 한자성어에는 참고

가 될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혼동을 줄이면서 한자 실력도 키울 수 있게 비슷한 한자들을 정리했고 쓰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예문도 덧붙였으며, 고사성어(故事或語)는 유래도 밝혀 놓았다. 저자인 권승호 교사는 "이전에 출간된 한자성어 책과는 다르게 편집한 책이기에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면서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도 독학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교사는 "한자 실력을 향상 시키는 물론 책 읽는 즐거움에 푹 빠지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비즈쿨 고교생 대상 창업 캠프 개최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 교수)이 고교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한 창업캠프인 '전북 비즈쿨 연합리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2박 3일간 제주항공 우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대와 전주대, 원광대 등 창업선도대학과 전북비즈쿨교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 행사는 도내 비즈쿨 고교생 16개교를 대상으로 이론 위주의 정적인 창업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적인 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정신 및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전북지역 비즈쿨 학생들의 현장형 프로그램을 연합으로 진행해 네트워크 기회 및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3일간 이뤄지는 이번 캠프에서는 첫날에는 랜덤 페이퍼 선택을 통한 랜덤 팀 빌딩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크 Quiz 대결, 청년창업가 기업가 정신 강의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어 이튿날에는 Making 체험, 여성창업가 특강, 아이디어 고도화, 크라우드펀딩 특강 및 랜딩페이지 제작 체험을,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도미노 블록을 활용한 팀워크 활동, 모의크라우드 펀딩 진행 및 시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전북 연합리그를 통해 청소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험형 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전북도 창업선도대학의 중심이 되고, 우리지역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